


[2024-50호]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 도 자 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	
배포일시	2024. 6.22.(목)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전시		
연락처	323-936-3014/tammy@kccla.org	담당자	Tammy Cho		

데스칸소 가든에서 첫 한국미술 전시회 개최 《화조도: 미주 한인 미술의 꽃과 새》

- 6월 27일부터 3개월간 데스칸소 가든내 하가(Haaga) 갤러리에서 열려
- 꽃과 새를 주제로 한국의 전통(도자기, 목조각, 칠기)과 현대(벽화, 도자기, 직물, 추상회화) 작품 50여점 전시



데스칸소 가든 스테트 하가 갤러리 외관 사진 (Image credit: Descanso Garden)

- ▶ 전시명 : 《화조도: 미주 한인 미술의 꽃과 새》
(HWAJODO: Flowers and Birds in Korean American Art)
- ▶ 전시기간 : 2024.6.27(목)~9.29(일)
*오프닝 행사 : 2024.6.27(목) 5:00pm
- ▶ 전시장소 : 데스칸소 가든 스테트 하가 갤러리
(1418 Descanso Drive, La Canada Flintridge, CA 91011)
- ▶ 주최(커뮤니티 파트너): Descanso Gardens (LA한국문화원)
- ▶ 관련 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4 전시담당 Tammy Cho,
Descanso Garden 818-949-4200 ext.231 Jennifer Errico
(Director of Communications)

LA한국문화원(원장 정상원)은 오는 6월 27일부터 3개월간 라 카나다 지역에 위치한 데스칸소 가든내 스투트 하가 갤러리(Sturt Haaga Gallery)에서 첫 한국미술 전시 《화조도: 미주 한인 미술의 꽃과 새》가 열린다고 밝혔다.

LA한국문화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데스칸소 가든의 큐레이터이자 아시아 미술사학자인 메이어 맥아더(Meher McArthur)와 함께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가든 갤러리에서 한국의 꽃과 새를 주제로 한 전시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준비해 왔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생동감있게 표현된 한국과 미주지역 한인 미술가들의 전통과 혁신을 담은 50여점의 작품들이 관람객을 맞는다.

전시는 전통미술과 현대미술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미술 섹션에는 한국민화의 대가 송규태 화백과 그의 제자인 미주한국민화협회 성기순 회장, 그리고 협회 회원작가들의 민화작품들을 비롯하여, 병풍, 도자기, 목조각, 칠기 등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현대미술 섹션에서는 현혜명, 데이브 영 김, 데이나 와이저, 제인 박 웰스 등의 4명의 현대미술 작가들이 대형벽화, 도자기, 직물, 추상회화 등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데스칸소 가든은 LA 한인타운에서 북동쪽으로 10여 마일 떨어진 라카나다에 위치했으며, 1953년 신문사 발행인이었던 맨체스터 버디(1880~1967)의 소유지 150에이커를 LA카운티 정부가 인수해 조성한 식물원으로 LA를 비롯한 남가주 주민들의 많이 찾는 지역 명소이다.

정상원 문화원장은 “이번 전시는 데스칸소 가든에서 첫번째로 열리는 한국미술전시로, 평소 미국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한국의 전통회화와 동시대 미술을 함께 선보인다. 올 9월말까지 전시되는 전시인만큼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다양한 한국미술의 모습을 느껴보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전시 개막식은 6.27(목) 오후 5시 데스칸소 가든내 하가 갤러리에서 개최되며, 개막식 중에는 방문객들에게 가든을 무료로 개장할 예정이다. 한편, LA한국문화원에서는 전시기간 동안 데스칸소 가든과 함께 커뮤니티 연계 행사인 한국미술체험 프로그램 등을 열어 한국 미술의 매력을 현지 사회에 홍보할 계획이다.

더 자세한 문의는 LA한국문화원 전시 담당 태미 조 323-936-3014로 연락하면 된다. /끝/